

#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과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

姜鳳求\*\*

I. 서론	III.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의 성과와 한계
II.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러시아의 대응	A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B ‘메이크 인 인디아’ 방식의 Ka-226T 헬리콥터
A 인도 방위산업 시장과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IV.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의 전략적 의미
B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V. 결론

## 한글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냉전 후 시기에 인도와 러시아간에 진행되어 온 인도 현지 합작생산 방식의 방산협력의 전개 과정, 성과 및 제한점 등을 검토하고, 21세기에 재활성화된 양국간 방산협력이 함축한 지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있다. 사례 연구는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그리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취지에 따른 최초의 합작생산 프로젝트인 카모프 Ka-226T 헬기에 초점을 두었다. 브라모스의 경우, 인도와 러시아의 합작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기술 제공국과 수원국 모두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공적인 이 합작생산의 경험은 인도 공군과 육군의 경량 다목적 헬기 획득 사업에 러시아가 합작생산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데 하나의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 가능하다. Ka-226T의 합작생산은 최종 발주 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이 문제는 조만간 기술 이전 정도 및 가격, 새로운 합체 헬기 입찰의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재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 세력관계 속에서 인도-러시아 방산협력의 재활성화를 추동한 요인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인도의 무기체계 도입과 운용에서 경로 의존적 요인의 작용이다. 둘째, 군사기술 이전(인도의 입장)과 군사기술 협력의 시너지 효과(양국의 공동 입장)에 대한 기대이다. 셋째, 양국이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지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모스와 Ka-226T의 사례는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 인도-러시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카모프 Ka-226T 헬리콥터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2A01026953). 유익한 논평과 함께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knowpow@hanmail.net, bkkang88@hanyang.ac.kr

## I. 서론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국내 제조업의 획기적 기반 증대를 위해 시동한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은<sup>1)</sup> 인도의 산업구조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재편함으로써 지속적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현대화를 도모하려는 장기적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방위산업(防衛産業 defense industry, 이하 방산) 분야에서 이 정책은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의 인도 현지 합작 생산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R&D), 첨단기술의 이전, 제3국으로의 수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방산분야 적용은 합작기업을 통한 단순 조립생산이 아니라 첨단기술 이전을 통해 인도 제조업의 혁신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수출 시장 확장이라는 다각적 파급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동 정책의 핵심 적용 영역이자 견인차로 간주되고 있다. 향후 몇 년 동안 인도군의 전력 증강과 군현대화를 위해 \$2500억이 투하될 거대 획득사업 및 제3국 수출을 기대하면서, 미국, 유럽, 러시아, 일본 등 군사강국들 뿐 아니라 이스라엘, 한국, 호주 등 중견국가들도 세계 최대 방산시장 선점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인도 방산시장을 둘러싼 뜨거운 경쟁 구도에서 인도와 러시아간의 방산 협력은 몇 가지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첫째, 러시아가 냉전기부터 지금까지 인도에 대해 최대의 무기 공급국 역할을 해 왔으며, 그 결과 인도 무기체계와 군사장비가 러시아의 그것과 호환성이 높다. 둘째, 냉전의 종결 이후 인도는 꾸준히 무기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수입 비중은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모스크바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취지에 적

1)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새로운 이니셔티브가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 건설 계획, 설계, 혁신 및 연구/개발, 비즈니스 환경 개선, FDI 투자 부문 및 우대 조치 등을 개관한 홈페이지 참조, “New Initiatives,” <http://www.makeinindia.com/policy/new-initiatives> (검색일: 2020.1.12.).

극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러시아의 적극적 대응은 단순히 인도 무기시장에서의 점유율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의 방산협력 심화를 통해 뉴델리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의도하고 있다. 셋째, 인도와 러시아는 냉전기와 같은 준동맹적 파트너십의 복원은 어려울지라도 새로이 형성된 글로벌/지역적 힘의 배열에서 여전히 서로 전략적 협력 관계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 접면과 방산 협력 사이의 유의미성이 추론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과거 인도와 러시아 간 방산 협력 사례 그리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조용한 현재 사례의 분석을 통해 양국 방산협력의 성과와 한계, 지전략적 맥락을 검토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아시아지역에서 급속한 위상 증대의 도정에서 경제와 군의 현대화 정책을 추구하는 인도와 세계적인 무기 수출국인 러시아간의 방위산업 협력이 갖는 경제적·안보전략적 의미 즉, 모스크바가 기술 수출과 합작 생산에 부수되는 경제적 수익성 외에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적극 부응한 이유가 무엇이며, 인도가 과거 냉전기와 비교하여 준동맹적 위상을 상실한 러시아와의 방산 협력 재강화를 시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밝히고자 한다. 인도와 러시아간 군사협력 분야에서 주요 현안을 다룬 이 시도는 연구사의 공백을 메워주는 학술적 의미에 더하여 한국 방산기업들의 한-인도, 한-러 방산협력 분야의 국가정책 입안 시에 비교의 준거로 삼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인도의 방위산업 그리고 방산 시장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의미 및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분석한다. 3장에서 과거 대표적인 인-러 합작기업의 인도 현지 생산 프로젝트인 브라모스(BrahMos) 크루즈미사일 생산의 전개 과정, 성과 및 한계를 검토하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첫 합작사업인 카모프(Kamov) Ka-226T 헬리콥터(이하 Ka-226T) 합작생산 프로젝트의 현황, 기대효과 및 제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브라모스와 Ka-226T를 비롯한 인도-러시아간 합작 무기 생산이 함의한 지전략적 측면을 논구할 것이며 5장은 결

론으로 마무리된다.

## II.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과 러시아의 대응

### A 인도의 방위산업 시장과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제조업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제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25개 제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여 2022년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을 15%(2014년 기준)에서 25%로 늘리고 일자리 1억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나노 기술공학 등의 발전에 기초한 4차 산업 혁명의 확산 추세 속에서 인도 현지에서의 제조업 육성 그리고 그에 필요한 단순 조립 및 기술 인력 양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선발 제조업 강국과의 격차를 좁혀 나가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고도성장의 지속과 경제 현대화라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요원하다는 지적이다.<sup>2)</sup> 이러한 비판을 감안하여, 인도 방위산업에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 우수 방산업체들과 협업으로 첨단 무기체계와 군사장비의 공동 연구/개발, 생산의 현지화는 제조업 강화와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 가치 상품 생산을 목표로 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경제적 취지에 부합하고, 인도군의 전력 증강과 군현대

---

2)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연구는 2020년 전까지 대부분 단순 육체노동과 사무직 등에 속하는 5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과거와 다른 숙련기술과 직무역량을 요구하는 2백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교육 프로그램은 인도의 증가하는 산업예비군들에게 이처럼 수요가 늘어나는 신직종에 적용될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데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Sundeep Khanna, "Time to Rethink Modi's 'Make in India' Push," *Livemint*, December 28, 2016.

화를 위한 방위산업의 독립성 제고라는 군사-안보적 목표에 기여하며, 더 나아가, 세계 무기시장으로의 진출 야심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수브라타 사하(S. Saha) 인도 육군 부참모장은 2016년 국방박람회(Defence Expo)에서 인도 정부의 새 국방획득정책(Defence Procurement Policy: DPP)은 인도육군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도록 입안되었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다름 아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인도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가장 잘 부합된다고 강조하였다.<sup>3)</sup>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 생산의 현지화 노력을 통해 뉴델리는 2020년까지 방산장비 70%의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4)</sup> 이를 위해 모디 총리 역시 2017년 초, 향후 몇 년 동안 군전력 현대화를 위해 제트전투기, 잠수함, 곡사포 및 헬멧 등에 \$2500억을 투자하는 데 그러한 인도군의 방산협력 발주 역시 모두 메이크 인 인디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였다. 세계 유수의 방산업체들을 초대해 에어쇼를 개최한 마노하르 파리카르(M. Parrikar) 전 국방장관의 의도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방위산업에 계약권을 부여하고, 외국기업에게는 국내기업들과 협작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타타 그룹, ‘마힌드라&마힌드라’사, ‘라르센&토우브로(L&T)’사 등 현지 기업들은 방위산업 투자를 늘리고 해외 제조사들과 합작 벤처를 형성해 왔다.<sup>5)</sup>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생산/제조 현지화 시도 이전에도 뉴델리는 인도 자력의 연구/설계에 기초하여 독자 모델 고성능 무기체계 개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던 적이 있다. 일례로, 인도 해군의 항모 탑재용 항공기로 개발 중인 테자스(Tejas)의 경우, 1983년에 정부의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

3) Ruchi Bambha, “‘Make in India’ Best Suited to Cater to Needs of Indian Army: Lt Gen Subrata Saha, Deputy Chief of Army Staff,” *The Economic Times*, April 15, 2016.

4) Rajat Ganguly, “India’s Military: Evolution,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India Quarterly* Vol. 71, No.3, 2015.

5) “Showdown of America First Versus Make in India Looms at Aero India 2017,” *Bloomberg*, February 20, 2017.

작하여 1994년에 실전 배치를 계획하였지만,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무기를 적재한 해군용 테자스는 2016년 12월의 해군용 시험 비행을 포함하여 지난 몇 년 동안 항모의 2백 미터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데 계속 실패하여, 요구되는 성능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테자스의 연구 및 개발 기획자들은 이 기종을 벵갈루루 에어쇼(2017년 1월)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시범 사례로 보이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개선점이 많은 상태로 남아 있다. 인도 해군은 37년 동안 개발과 제작이 진행되고 있는 이 토착 항공기의 기체가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였다. 현재까지 인도 공군에 단 3대가 도입되었을 뿐이다.<sup>6)</sup> 이처럼 항공기 개발 및 생산에 기술 축적이 되지 않은 국가가 완전한 토착 모델 개발에 성공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성공 확률도 낮은 편이라는 점에서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 생산에 초점을 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실효성이 있다.

## B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과거 냉전기부터 인도는 1971년 인-소 우호조약 체결 이래 자국 안보의 협력자 혹은 제공자 역할을 해 주었던 러시아(소련)산 무기에 거의 일방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인도-러시아간 군사협력이 약화되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것은 특히 안드레이 코지레프 외교장관 시기 인도 홀대의 결과였다. 당시 코지레프의 외교정책은 인도에 과거와 같은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파키스탄과 거의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당시 나라시마 라오(Narasimha Rao) 총리가 안보-군사 협력 및 무기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시작한 데는 모스크바의 인도에 대한 무관심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워싱턴은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전통적 영향력을 침식할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인도에게 핵추진 잠수함, 신형 항모, 초음속 미사일, 극저온 로켓 엔진 등 고기술의 무기체계를 제공

6) “Indian Navy Spurns Homemade Warplane, Latest Blow to PM Modi’s ‘Make in India’ Plan,” *Reuters*, February 20, 2017.

한 유일한 나라이며, 1990년대의 열친 시기를 제외하면, 러시아(소련)와 인도의 파트너십은 공고하게 유지된 편이다.<sup>7)</sup>

러시아와 인도의 군사협력 관계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이후인 2000년대에 들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10년대의 추이를 보자면, 2010-2014년 기간 인도 군수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은 70%, 미국은 12%, 이스라엘은 7%를 점하였으며, 2014-2018년 기간에는 러시아의 비중이 58%, 미국이 12%, 이스라엘이 15%를 차지하였다.<sup>8)</sup> 2018년에 양국간의 거래액은 약 \$83억, 2019년에는 약 \$61억으로 집계되었는데, 2018년에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이유는 S-400 트리움프(Triumf) 대공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거래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2010년대에도 러시아는 여전히 인도의 군수 시장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21세기 글로벌/지역적 힘의 배분과 국제세력관계의 재구성, 그에 대응하여 인도의 전략적 입지가 변화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러시아에 큰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냉전기처럼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해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인도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순위에 놓고 그에 부응한 군사 및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해 왔다. 동시에 군수 및 방위산업의 러시아 의존성을 탈각하기 위해 이스라엘, 미국, EU 등으로 무기 수입선의 다변화를 추구해 나왔지만, 오래 동안 러시아에 편중되어 왔던 무기 수입 및 군사기술 협력은 새로 도입되고 있는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인도가 추구하는 방위산업의 자립성 제고 및 군전력의 현대화를 통해 독자적 방위 능력 증강을 위해서는 무기 수입 시장의 다변화 추구하고 함께 인도 현지 합작생산

7) Rakesh Krishnan Simha, “Views from Virginia: Why Russia Is India’s Dominant Arms Supplier?”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8, 2017.

8) Nivedita Kapoor, “India-Russia Relations: Beyond Energy and Defence,”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ssue Brief, Issue No. 327, December 2019, p. 11, Table 8 (Source: SIPRI).

9) Kapoor (2019), p. 10, Table 7: Indo-Russia Defence Deals: 2018-19.

을 통해 첨단 군사기술의 이전 및 공동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처럼 인도 방산 시장의 변화된 환경은 이 시장에서 러시아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신의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인도가 자국의 군수 시장에 과거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며 균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 편익의 최대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대응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굴지의 해외 방산기업들 역시 세계 제1의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 인도 군수시장 점유율 제고의 필수 조건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 남부 벵갈루루에서 개최된 2017 에어쇼(1월)에서 미국의 보잉사, 록히드마틴사, 러시아 미그사 및 유럽의 에어버스(Airbus) SE 등이 자사 항공기의 위용을 뽐냈다. 보잉사와 록히드마틴사는 만약 인도가 자신들의 전투기를 선택해 준다면, 인도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스웨덴의 사아브(Saab) AB사도 계약 수주를 위해 생산라인의 인도 이전을 내걸었다. 이것은 인도군의 노후 항공기 교체<sup>10)</sup> 위한 대규모 수주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sup>11)</sup> 글로벌 군수기업들이 하나같이 인도 현지 생산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모디 총리가 향후 몇 년 동안 군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제트전투기, 잠수함, 곡사포 및 헬멧 등에 \$2500억을 투자하는 데 그러한 인도군의 군수 발주 역시 모두 메이크 인 인디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천명하였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의 군수업체들을 초대해 에어쇼를 개최한 파리카르 전 국방장관의 의도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군수산업에게 계약권을 부여하고, 외국기업에게는 국내기업들과 협업을 유도하는 데 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타타 그룹, 마힌드라 및 마힌드라사, 라르센 및 토우브로사 등 현지 기업들은 방위산업 투자를 늘리고 해외 제조사들과 협력 벤처를 형성해 왔다.<sup>12)</sup>

10) 현재 인도 공군의 항공기 650대 가운데 1/3이 40년 이상의 기령이며 10년 이내에 퇴역 예정이다.

11) “Showdown of America First”(2017).



러시아의 방산기업들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으로부터 파생하는 기회를 둘러싼 뜨거운 경쟁 구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구도 속에서 러시아의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의 인도 산업 전반 및 금융자산 투자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러-인 경제관계에서 양국이 장기간 협력을 유지해 왔으며, 러시아가 가장 큰 강점을 가진 부문은 바로 군사-기술 분야의 협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모디 총리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대한 러시아 정부 특히 방산 기업들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 효과에 대한 자신감은 바로 이 점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 정부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정부보다도 자국 기업들과 인도 방산기업들과의 합작 생산을 더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모디 총리의 러시아 방문(2015년 12월)에서 양국은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을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심무대로 삼는 데 합의하였다. 모스크바와 뉴델리는 그 실천 사업으로 군용 헬기 합작 생산을 결정하였다.<sup>13)</sup>

러시아는 방위산업 부문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에 부응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기로 합의한 첫 국가이다. 특히, 러시아는 인도를 글로벌 항공기술 관련 산업의 제조기지로 삼고 항공산업 분야에서 기술공학 및 생산 능력 개발을 위해 현지 기업들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14)</sup> 이 점에서 Ka-226 카모프 헬기의 인도 현지 생산을 위한 러-인 정부간 협정은 주요 방위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sup>15)</sup> 또 러시아는 인도 공군이 발주하는 400기의 전투기 공급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다. 러시아 측은 이 입찰에 최신티 미그(MiG) 및 수호이(Sukhoi) 제트기 가운데, 특히 MiG-35 경량 전투기의 새 버전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다.

12) “Showdown of America First”(2017).

13) Shubhajit Roy, “‘Make in India’ to Be at the Centrestage of India-Russia Strategic Relationship,” *The Indian Express*. December 25, 2015.

14) “Russia Keen to Tap India as Global Aeronautics Manufacturing Base,” *The Hindu*, August 19, 2016.

15) Roy (2015).

일리아 타라센코(I. Tarasenko) MiG사의 총괄이사는 인도 측과 MiG-35기를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 현지화의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sup>16)</sup>

러시아가 정부차원에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하는 러-인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 생산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약 반세기 동안 인도의 긴밀한 군사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의 최대 무기 공급국가 역할을 해 온 결과, 인도군의 무기체계에서 해군의 80%, 공군의 70%, 군 전체적으로 약 72%가 러시아(소련)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sup>17)</sup> 장기간에 걸쳐 도입하고 운용해 온 무기체계의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그것을 반영하는 호환성의 측면에서 러시아 방산기업들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소련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인도와 MiG-21FL의 합작생산 경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상대국의 제도, 법률, 생산 조직 방식 및 기업 문화 등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하여 타국에 비해 거래 비용이 낮다. 셋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 수입 규모 세계 1위인 인도 방산 시장은 러시아의 외화 획득원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였다. 또 안정적인 수출 시장의 확보는 러시아 방위산업의 적정 생산 규모를 유지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넷째, 러시아와 인도와의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 생산은 양국의 첨단 기술 및 제조 능력의 결합으로부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이것은 인도군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전력 증강과 현대화에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인도에서 합작 생산된 무기의 인근 지역 수출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상기 지적 요인들 외에 핵심적인 전략적 고려 사항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것은 인도와의 방산 협력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전반

16) Aniket Chakraborty, "Russia to Take Part in IAF Tender for 400 Fighters,"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16, 2017.

17) Mees van der Werf, "A Longstanding Friendship under Threat—Part 1," RIAC, August 9, 2018.

의 지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부분이다. 러시아는 무기 수출 및 방산 협력 사업을 무엇보다도 국가이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지렛대로 간주해 왔다. 모스크바는 무기 수출을 통해 국내에서 고기술 무기체계의 생산을 지원하고 자족적 방위산업을 유지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라는 위상의 유지를 자신의 ‘강대국’ 지위를 드러내는 핵심적 징표의 하나로 간주해 왔다.<sup>18)</sup> 러시아는 무기 수출 및 방산 협력을 통해 상대국에 대한 영향력 증대 혹은 우호적 제휴 관계 유지·강화를 목표로 추구해 온 것이다. 방위산업의 경제적 측면과 자족적 생존 능력도 고려 요인이지만, 총체적 국가이익, 특히 지정학적·지전략적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왔던 것이다.<sup>19)</sup> 지정학적·지전략적 맥락에서 인도와의 오랜 전략적 파트너십의 복원과 강화는 모스크바의 적극적인 대인도 방산협력 참여의 중요한 배경 의도이다.

### Ⅲ.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의 성과와 한계

#### A.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

소련이 인도의 방산시장에 진입한 1960년대 이후 사실상 소련은 이미 여러 사례들에서 인도 현지 생산 원칙에 따라 협력해 온 경험이 있으며, 인도와의 방산협력에서 독보적인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왔다. 그것은 안보전략적인 요인 외에 인도의 전투기 생산을 위한 소련의 라이선스 허용 및 기술적 지원 그리고 고기술 무기체계의 이전을 어떤 다른 경쟁 국가보다도 더 용이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sup>20)</sup> 소련이 MiG-21의 2세대

18) Stephen Blank and Edward Levitzky, “Geostrategic Aims of the Russian Arms Trade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Defence Studies*, Vol. 15, No. 1, 2015, p. 77.

19) 무기 수출을 통해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보 목적을 추구해 왔다: 강대국이라는 이미지 제고; 독립적 외교정책 유지; 해당 지역으로 영향력 확대; 자원 개발권 획득; 국방 협력 관계 강화; 군사 기지 확보 등. Blank and Levitzky(2015), p. 64.

항공기, MiG-21FL을 공급한 최초의 프로젝트부터 인도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이전을 포함하고 있었다(1966년부터 인도에서 라이선스 생산 시작). 이 관례는 신형 MiG-23과 MiG-27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Su-30MKI 항공기의 현지 생산에서 정점에 도달하였다.<sup>21)</sup>

이러한 현지 합작 생산 사례는 탈냉전 시기에도 이어져, 러시아도 인도와 공동 연구/개발 및 첨단 기술 이전에 어떤 나라보다도 더 정부 차원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 간 합작 기업 설립을 통한 첨단무기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을 들 수 있다. 인도의 크루즈미사일 개발 구상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은 이라크의 지휘·통신 센터를 마비시켜 이라크군을 공습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100-200기의 크루즈미사일이 120만의 이라크군을 고립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인도 국방 기획가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처럼 토마호크 미사일의 위력을 목격한 것은 인도군이 정밀 공격용 크루즈미사일의 획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sup>22)</sup>

인도와 러시아는 1995년 새로운 브랜드의 크루즈미사일을 개발할 양국의 합동 벤처를 설립하였다.<sup>23)</sup> 브라모스란 명칭은 인도의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강과 러시아의 모스크바(Moskva)강을 합성한 것이다.<sup>24)</sup> 브

20) Simha (2017).

21) Konstantin Makienko, "Make in India Is an Ideal Platform for the Russian Defence Industry: Expert,"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1, 2017.

22) Rakesh Krishnan Simha, "Mission BrahMos: How India Got the World's Most Powerful Cruise Missile," *Russia & India Report*, May 29, 2016.

23) 인도 측에서는 '국방연구/개발기구(Defence Research & Development Organization: DRDO)'가, 러시아 측에서는 크루즈미사일과 우주선 등을 개발한 NPO 마쉬노스트로예니아(NPO Mashinostroyeniya: NPOM)가 협력 파트너로 나섰다. 러시아 측이 엔진 제작 기술을 인도에 이전하여 인도 현지에서 엔진의 생산뿐 아니라 미사일의 조립생산을 시도해 보자는 사업 구상이었다. 지분은 DRDO가 50.5%, NPOM이 49.5%로 합의를 하고 러시아 측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인도 국방부 산하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으로 출범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1996-1997년 대통령 선거 국면과 이후 열린 대통령의 와병 등 국내 사정으로 인해 양국간 최종 협정은 1999년 3월에 이루어졌다. Simha(2016).

24) "India, Russia Agree to Export BrahMos to Third Countries," *TASS*, May 29, 2016.

라모스는 원래 대함 미사일로 개발되어 왔지만, 지상 타격 모델도 구비하고 있다. 단거리 초음속 미사일로써 마하3의 스피드를 자랑한다. 마하6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업그레이드 모델은 현재 시험 중에 있다. 브라모스는 GPS, GLONASS, GAGAN 등 위성 유도 장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및 인도의 네비게이션 위성을 이용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로부터 가로 세로 1.5m의 작은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정확성을 갖고 있다. 기존의 최신형 크루즈미사일과 비교하면, 브라모스는 3배 이상의 속도, 2.5-3배의 비행거리, 3-4배의 탐지거리, 9배 이상의 운동 에너지 등을 자랑한다.<sup>25)</sup> 브라모스 미사일은 육상, 해상 및 수중 플랫폼에 대해 모두 동일형이 적용되며, 운송, 보관 및 발사를 위해서 ‘운송발사함(Transport Launch Canister:TLC)’을 이용한다.<sup>26)</sup> 인도 현지에서 합작 생산된 브라모스 미사일은 2001년에 처음으로 시험 발사되었으며, 2006년에 인도군에 실전 배치된 이래 육군, 해군 및 공군에 모두 도입되어 왔다. 인도군의 총 소요량은 약 1천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27)</sup> 인도는 2016년 4월 브라모스 초음속 크루즈미사일 2개 연대를 도입하여 기존의 3개 연대에서 5개 연대로 전력 증강이 이루어졌다.<sup>28)</sup>

브라모스 합작 생산에서 특기할 점은 인도군의 필요에 따라 원래 대함

25) 동 미사일을 생산하는 인도-러시아 합작회사인 ‘브라모스 항공우주(BrahMos Aerospace)’ 사에 따르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290km이고 비행 내내 초음속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0-300kg의 재래식 및 핵 탄두를 운반할 수 있다. 순항고도는 최대 15km이며 종말 단계의 고도는 10m 정도까지 낮아진다. 러시아의 ‘해면 근접 유영(sea-skimming)’ 기술을 이용하여 해상 발사 대함 미사일의 경우 수면 위 최저 3~4m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을 정도이다. 비행시간이 짧아 타격 목표물의 분산을 방지하고 교전 시간이 더 단축된다. 빠른 속도에다 목표물로 향하는 도중에도 비행 방향을 변경할 수 있어, 근접 무기체계를 비롯한 기존의 어떤 무기체계로부터도 쉽사리 차단당하지 않는다. 전자 교란 환경에도 내성이 강하여 요격미사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 또 충돌 시의 큰 운동 에너지로 인해 파괴력이 한층 제고되었다.

26) 지상 발사 브라모스는 타트라(Tatra) 차체에 장착된 이동식 TEL(transporter-erector-launcher)로 운반되고 발사되며, 발사차량은 미사일 3기를 적재하여 3명의 승조원이 이를 운용한다. 한 개 포대는 3~4대의 발사 차량, 지휘대 및 제장전 차량들로 구성된다 “India, Russia Agree to Export BrahMos” (2016).

27) “BrahMos Cruise Missile,” Military-today.com.

28) “India Gets Two New BrahMos Regiment,” *Sputnik*, April 1, 2016.

미사일 외에도 연구/개발을 통해 공중발사 미사일의 개발까지 진화해 왔다는 데 있다. 전투기에서 브라모스를 공중발사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의 중량을 줄여야 하며, 미사일 탑재와 발사가 가능하도록 대상 전투기를 개조해야 한다. 먼저, 공중발사 브라모스-A 모델은 3톤에 달하는 지상 및 해상 발사 미사일보다 조금 더 가벼운 2.5톤으로 경량화되었으며, 공기역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미에 추가 날개가 붙어 있다. 브라모스-A는 200킬로의 재래식 탄두 혹은 300킬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브라모스 항공우주사는 하중이 큰 브라모스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HAL이 조립 생산해 온 인도 공군의 신예 다목적 전투기 Su-30MKI의 하부격납고를 더욱 강화하였다. 두 대의 Su-30MKI를 브라모스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수차례 시험을 진행해 왔던바, 브라모스-A를 탑재한 Su-30MKI의 첫 시험 비행은 2016년 6월에 수행되었으며, 2017년 11월 브라모스의 공중발사 모델인 브라모스-A 미사일의 시험 발사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sup>29)</sup> 인도 공군은 50대의 Su-30MKI 변형 모델에 브라모스-A 공중발사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sup>30)</sup>

Su-30MKI 제트전투기는 브라모스의 크기와 중량을 고려하여 운송발사함에 단지 1기의 브라모스-A를 탑재하지만, 그 의미는 적지 않다. 인도 공군의 역사에서 장거리 다목적 제트 전투기에 고중량의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 결합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브라모스 미사일은 지상, 해상 및 공중 발사 역량을 모두 구비하여 크루즈미사일의 전술 3요소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특히 마하2에 가까운 속도, 8톤의 탑재량, 항속거리가 3,200km인 Su-30MKI에 탑재됨으로써, 사정거리 290km의<sup>31)</sup> 브라모스-A 미사일의 작전 범위는 ‘치명적인 조합(a deadly

29) Su-30MKI의 동체로부터 중력 낙하된 미사일은 2단 엔진의 가동과 함께 뱅골만에 위치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정확히 명중하였다. 브라모스 공중발사크루즈미사일(Air Launched Cruise Missile: ALCM)의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도 공군의 원격 공중전 작전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Dinakar Peri, “In a First, Air-launched BrahMos Missile Test-fired,” *The Hindu*, November 22, 2017.

30) Franz-Stefan Gady, “India’s Air Force to Start Receiving Nuclear-Capable Cruise Missile in 2018,” *The Diplomat*, November 14, 2017.

combination)’으로 불릴 만큼 확대되었으며,<sup>32)</sup> “억지력과 전투능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정도이다.<sup>33)</sup> 더 나아가 인도군이 보유한 다소사의 라팔 다목적 전투기도 브라모스-A 탑재가 가능하도록 개조될 예정이며, 향후 수년에 걸쳐 인도 공군은 200기의 공중발사 브라모스-A 미사일을 보유할 계획이다.<sup>34)</sup>

브라모스의 성공적인 테스트 비행 통과와 2006년 실전 배치를 완료한 후, 인도와 러시아는 브라모스를 제3국에 수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연합,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칠레 등과 거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sup>35)</sup> 특히 공중발사 브라모스-A 미사일의 발사 성공 후, 인도네시아는 이 모델의 도입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또 지상발사 미사일 포대를 처음으로 가동한(2019년 10월) 필리핀은 지상발사 브라모스 미사일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여 제1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sup>36)</sup> 그런데 수년 동안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서의 브라모스 미사일에 대한 관심과 구매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거래 계약 성사가 되지 않았던 배경에는 러시아 측 요인도 작용하였다. 러시아의 관련 인사들은 언제나 수출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지만,<sup>37)</sup> 러시아는 브라모스 미사일이 그 설계를 본뜬 야혼트(Yakhont) 미사일을<sup>38)</sup> 이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모스가 야혼트와 비교하여 수

31) 2016년 인도가 MTCR에 가입함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규정 300km가 해제되어 육상 및 해상발사 브라모스의 최대 사정거리는 450km로 업그레이드되었다. 브라모스-A의 경우도 사정거리는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32) “India to Arm Sukhoi Fighters with BrahMos Supersonic Cruise Missile; First Test This Week,” *Times Now News*, November 14, 2017.

33) Pravin Sawhney, “Sky is the Limit for Cruise Missile,” *The Pioneer*, October 12, 2017.

34) Gady (2017); Peri (2017).

35) Rajeswari P. Rajagopalan, “Why BrahMos Sale to Vietnam Is No Violation of Missile echnology Control Regime Commitments,” *Outlook India*, August 23, 2017.

36) “BrahMos Close to 1<sup>st</sup> Export Success? Philippines Expresses Interest,” *The Week*, October 28, 2019.

37) Huma Siddiqui, “Made in India Missiles Big Hit! Countries across the Globe Show Interest in Buying BrahMos, Akash,” *The Financial Express*, Updated on March 14, 2019.

38) ‘야혼트’는 러시아의 P-800 오닉스(Oniks) 미사일의 수출명이다. Dmitry Sikorsky, “India to Build BrahMos 3 for Russia,” *Russia & India Report*, April 7, 2016.

입국이 원하는 제원과 성능 혹은 가격 요인에서 특별한 유인을 제시하지 않고는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합작생산된 브라모스가 현재까지 제3국 수출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지만, 러시아와 인도의 합작생산 모델인 브라모스 블록-3(Block-III)<sup>39)</sup>의 파급효과의 하나로서, 인도형 다목적 제트전투기 Su-30MKI의 러시아 역수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Su-30MKI는 원래 인도의 요구에 따라 독보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러시아는 인도 현지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러시아 항공우주방위군이 이 기종에 브라모스 블록-3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 이 전투기의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Su-30MKI용으로 디자인된 브라모스-A 미사일도 러시아군에 도입될 가능성이 덩달아 높아졌다.<sup>40)</sup> 제3국 수출과 관련해서는, Su-30MKI의 엔진(AL-31F)과 MiG-29 제트전투기의 엔진(RD33)을 주 수출품목으로 HAL과 로스오브론엑스포트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2020년 2월). 인도가 러시아산 제트기의 핵심 부품 공급 파트너로서 글로벌 공급 사슬의 한 고리를 담당하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sup>41)</sup>

인도군의 필요에 독점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설계된 토착 버전의 Su-30MKI를 러시아군이 획득을 원하고, 여기에 장착 가능한 인도-러시아 합작 생산한 브라모스 블록-3 미사일을 러시아 측이 도입하려는 것은 군사기술 제공국과 수원국의 관계에서 역방향의 무기 소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군사기술에서 현저한 우위의 러시아와 하위의 인도 간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생산이 때로는 인도뿐 아니라 기술 수출국인 러시아의 군 전력

39) 브라모스 블록-3는 러시아와 인도가 합작 프로젝트로 공동 개발한 것으로 고도의 유도 기능과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자랑한다. 여러 지점에서 다중 기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고도에서 지상으로 직강하 능력을 구비하여 산악 지대에 은거한 목표물을 직격할 수 있다. "BrahMos Cruise Missile."

40) Sikorsky(2016).

41) 지금까지 알제리,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르비아 등 Su-30계열 및 MiG-29 제트전투기 운용 국가들은 엔진 관련 부품을, 비용과 공급 편의 등을 이유로, 러시아 장비제조사의 승인 없는 제3국으로부터 조달해 왔다. "HAL to Export Su-30MKI, MiG-29 Engine Parts," *Defense World*, February 10, 2020.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브라모스 미사일 연구/개발의 진화 과정은 고기술 무기체계 합작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당사국 모두에게 작용하는 상생 모델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 B. ‘메이크 인 인디아’ 방식의 Ka-226T 헬리콥터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인도와 러시아간 첫 프로젝트는 카모프(Kamov) Ka-226T 헬기이다. 합작생산을 위한 러시아와 인도의 정부간 협정은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 2015년 12월에 체결되었다. 실무 작업을 거친 뒤, 인도의 고아 정상회담(2016년 10월)에서 ‘러시안헬리콥터스홀딩컴퍼니(Russian Helicopters Holding company)’, 로스오보론엑스포트 그리고 인도의 HAL(Hindustan Aeronautics Ltd.)이 Ka-226T 200기(약 \$10억 정도로 추산)를 인도군에 납품하기로 합의하고 합작 벤처기업의 설립에 서명하였다. 지분은 러시아측이 49.5%, 인도의 HAL이 50.5%로 결정되었다. 200기 가운데 60기는 러시아의 울란-우테(Ulan-Ude)에서 생산하여 인도 공군에 납품하고, 나머지 140기는 인도 현지의 합작 벤처기업이 조립 혹은 생산하여 인도 육군의 육군항공단(the Army Aviation Corps)에 납품할 예정이다. Ka-226T 헬기는 인도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체탁(Chetak), 치타(Cheetah) 및 공군의 치탈(Cheetal)을 대체할 것이다.<sup>42)</sup>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취지에서 현지화 비율이 중요한데, 인도 현지 합작생산분 중 마지막 100기는 인도산 부품의 비율이 30-40%에 이를 전망이다.

Ka-226T 경량 다목적 헬기는 러시아가 동급 최고 모델들 중의 하나로 내세우는 기종이다. Ka-226T는 프랑스에서 설계된 엔진을 채용하고 있어 원래의 Ka-226 모델보다 힘이 더 강력하며, 높은 안전성 충족, 탁월한 기

42) 모두 단발 엔진으로 노후화된 이 경량 헬기들은 안전도가 낮아 사고가 빈번한 편이다. 체탁, 치타 및 치탈은 프랑스 알루에트 계열(French Alouette family)의 경량 헬기이며, HAL이 제조허가를 받아 인도에서 생산한 것이다. 1971년부터 인도 육군에 도입되었는데, 경량 헬기의 통상 내구연한인 12-15년을 훨씬 넘긴 상황이다. A.K. Sachdev, “Will the Kamov Ka 226T Meet India’s Requirements” *Indian Defence Review*, Vol. 32, No. 1, Jan-Mar 2017.

동성, 정확한 공중 정지 능력, 비행의 용이성과 효율성, 현대 항공전자공학 적용 등을 자랑한다. 터보 쌍발 엔진(Arrius 2G1)을 장착하여 엔진 하나가 구동에 실패하더라도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다. Ka-226T는 Ka-25나 Ka-27과 같은 대잠수함 헬기 그리고 Ka-52 공격용 헬기와 동일한 카모프 디자인을 따른 것으로, 하나의 회전익 상부에 또 하나의 회전익을 올린 동축(同軸) 회전익을 가지고 있다. 후방 회전익이 없기 때문에 측면 풍압에 강하다. 그래서 지상과 공중에서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체가 회전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기동이 가능하다.<sup>43)</sup> 운항 가능 최대 고도가 7,300m에 달해 공기 밀도가 희박하여 이륙이 어려운 히말라야와 같은 고고도 지역에서 뛰어난 활용성을 보인다.<sup>44)</sup> 동축 회전익의 또 다른 장점은 재래식 헬기에 비해 이륙 중량 및 탑재량이 더 커서, 최대 이륙 하중은 3.5톤 이상이며, 최대 1톤의 유효 탑재량을 갖는다는 점이다.<sup>45)</sup> 주야간 운항, 강한 바람 등 악천후 조건, 육상 및 해상 공간에서도 운항 가능하다.<sup>46)</sup> 특히, 다용도 다목적 헬기로서 Ka-226T의 뛰어난 점은 재래식 고정 캐빈 대신에 용도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한 동체와 분리된 다양한 모듈 형태를 갖추고 있다. 모듈 형태라는 것은 헬기의 조종간 뒤편 공간에 최대 6인 탑승이 가능한 운송 캐빈 혹은 특수 용도 모듈을 필요에 따라 손쉽게 결합 장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Ka-226T 헬기는 정찰 등 군용, 수색 및 구조, 의료 및 운송 업무 등 다용도·다목적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sup>47)</sup>

43) Ka-226T의 기체 길이는 8.1m인데 비해 이보다 더 경량인 체탁 헬기의 길이는 10.03m이다. 그 차이는 바로 체탁의 후미에 회전익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날개보의 크기로부터 나온다. Sachdev (2017).

44) 세계 최고도의 군 배치 지역인 시아첸 빙하(Siachen Glacier)에 근무하는 인도 육군 병사들의 생명 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Modi-Putin Meeting on Saturday: S-400, Ka-226T on Top Agenda,” *The Week*, October 1, 2018.

45) 수송용 모델은 기체 내에 1톤을 적재할 수 있으며, 길이가 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크레인(걸어 올리는 갈고리)이나 화물칸을 설치할 수 있다.

46) 운항 가능 기온은 영하 50도에서 100% 상대 습도의 영상 50도의 구간까지로 매우 넓어, 웬만한 기후 조건에서는 격납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Ka-226T: Russia’s Unique Modular Helicopter,” *Defencyclopedia*, October 24, 2015.

47) “Ka-226T: Russia’s Unique Modular Helicopter”; “Ka-226T: Description,” Russian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한 최초의 방산협력 사례로서 Ka-226T 합작생산은 몇 개의 저기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대부분은 조립 생산에 의존하는 기존 합작생산과는 다른 형태로, 러시아와 인도간 헬기 산업 협력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의도하고 있다. ‘러시안 헬리콥터스’의 CEO 알렉산더 미헤예프(A. Mikheev)는 이 합작 벤처는 양국의 헬기 산업에서 협력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유망 프로젝트라고 규정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여러 가지 헬기 부품 생산 및 조립 라인의 설비를 포함한 헬기 산업의 본격적인 현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도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벤처기업은 조립 외에도 유지, 작동 및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은 생산계약일 뿐 아니라 전 기간 AS 지원 계약이기도 하다.<sup>48)</sup> AS와 부품 조달의 독립성 증대는 인도군과 방위산업계의 오랜 염원으로 남아 있었다. 무기체계의 특성상 도입과 배치 이후에도 장기간 AS와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체탁과 치타 헬기의 사례처럼 장비 운용의 심각한 장애와 안전사고 빈발의 원인이 된다.<sup>49)</sup> 이것은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서비스의 일관 제공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예시하는 사례이다.

인도군이 운용해 온 기존 경량 헬기의 노후화와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그 대체 헬기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Ka-226T의 최종적인 납품 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 현지 합작벤처 기업(India-Russia Helicopters Limited Company: HLC)은 인도에서 기업등록을 마쳤으며 (2017년 6월),<sup>50)</sup> 인도 국방부는 합작기업에 2018년 5월과 8월 두 차례에

---

Helicopters, 2017; “Ka-226T: Why Putin Personally Promoted This Helicopter to Modi,” *The Week*, September 5, 2019.

48) 러시아 헬리콥터스가 속한 로스텍(Rostec) 최고경영자 세르게이 케메조프(S. Chemezov)에 따르면, Ka-226T 헬기의 도입 및 배치 이후에는 기체의 유지·보수를 위한 설비를 역시 부가적으로 갖추어질 것이라고 한다. Konstantin Zavrzhin, “‘Russian Helicopters’ Could Localize Mi-17 Production in India,” *Russia & India Report*, November 19, 2016.

49) 인도 공군과 육군이 운용 중인 체탁과 치타의 경우, 이미 1980년대에 원 제작사인 유로콥터가 이 모델의 회전익 날개를 제외한 모든 생산라인을 폐쇄함으로써, 필요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높아져서 교체와 수리에 큰 애로를 겪어 왔다. Sachdev (2017).

50) “Russian Helicopters Announces Registration of Russian-Indian Maker of Ka-226T

결쳐 제안서(RFP)를 요청하였다.<sup>51)</sup> 또 러시아의 울란-우데 생산 및 인도 현지 생산 예정인 헬기의 형태·기술적 사양도 승인되었으며, 합작기업의 생산시설이 위치할 장소도 인도 남부의 카르나타카(Karnataka)주의 툼쿠르(Tumkur)로 선정되었다.<sup>52)</sup> 2019년 2월에는 인도 현지의 5개 업체들과 Ka-226T 조립 생산에 사용될 연료통, 회전날개, 전과장비 및 착륙기어 등의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sup>53)</sup> 이렇게 Ka-226T 현지 생산을 위한 제반 법률적, 기술적 절차 및 생산 단계별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었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인도 측은 계약 체결을 미루어왔다.

이 같은 최종 주문 계약 체결의 지체 요인에 대해 미국의 대러제재 및 이와 연관된 인도의 우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적대세력 대항 제재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CAATSA)’에 따르면(2017년 8월 의회 승인), 미국은 제재를 받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과 거래를 하는 은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법률에 따르면, 해외 군수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인도 은행은 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기금을 할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도의 은행이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기업에 그러한 보장을 제공할 경우 CAATSA에 저촉되어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도 은행이 미국의 금융 부문과 유지해 오고 있는 밀접한 연계를 고려하면, 이러한 미국 측의 제재 조치는 은행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여 인도 정부는 러시아와 기존에 체결된 무기 거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

---

Helicopters,” *Interfax*, June 19, 2017; “Indo-Russian JV for 200 Kamov Choppers Registered in India: Russian Defence Major Rostec,”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4, 2018.

51) Rahul Bedi, “Indian MoD Issues Follow-on RFP for 200 Ka-226T Helicopter,” *Jane’s 360*, September 10, 2018.

52) “India Issues Formal Tender to Purchase 200 Kamov Ka-226T Multi-Role Helicopters,” *Sputnik International*, May 17, 2018.

53) “Russian Helicopters Identifies Potential Partners in Localization of Ka-226T Chopper,” *The Economic Times*, February 21, 2019.

로 보증기금 할당 면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인도 현지 합작기업의 당사자인 러시아헬리콥터스로 확대되자,<sup>54)</sup> 뉴델리는 유엔이 부과한 제재는 따르겠지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와 상관없이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도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는데도 CAATSA를 통해 압력을 지속하는 것은 도리어 양국관계 증진에 역효과로 판단하여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안(NDAA-19)의 조항을 수정하였다. 수정 내용은, 만약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대통령은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180일 간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55)</sup>

이처럼, 미국의 제재 정책이 인도-러시아간 군수 거래 및 방산 협력에 대해 특히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는 이유는 인도의 무기체계와 그 운용에서 러시아 의존성을 단시일에 탈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6)</sup> 미국은 지난 10년간 인도에 대한 무기 수출액을 늘리고, 모디 총리의 집권 이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하여 현지 합작생산 방식을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이 정책의 수행에서 가장 큰 경쟁자가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대러 제재가 덜 엄격한 것은, 만약 CAATSA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인도-러시아간 무기거래와 진행 중인 방산협력 전체를 위협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뉴델리의 강한 반발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더욱 긴밀해진 인-미간 협력관계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인도 무기체계의 대러 경로 의존성과 인-미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

54) 2018년 4월 미국의 제재가 S-400을 생산하는 ‘알마즈-안테이(Almaz-Antey)’, 인도에 프리기트함을 인도 중인 ‘유나이티드조선사(the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Ka-226T 헬기를 (합작)생산하는 ‘러시아헬리콥터스’와 ‘로스오브론엑스포트’로 확대되자, 인도와 러시아간의 군사/군사기술 분야 거래들은 다시 난관에 봉착하였다. 이것은 인도 은행들이 약 \$1천억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군수 계약들을 동결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55) Alexey Kupriyanov, “Impact of the U.S. Anti-Russian Sanctions on the Russia - India Cooperation in the Military-Technical Area,” RIAC(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September 10, 2018, pp. 1-3.

56) Mees van der Werf, “A Longstanding Friendship under Threat - Part 2,” RIAC, August 10, 2018.

한 CAATSA의 유연한 적용 외에도, 러시아 측은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우회 조치를 강구하였기에 인-러간 지불 메커니즘에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sup>57)</sup> 그 근거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프롬스바지뱅크 PJSC(Promsvyazbank PJSC)가 S-400 미사일방어체제 도입에 대한 비용 지불을 포함하여 인도와 군수 거래를 가진 러시아의 방산 기업들에게 지불 보증을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은행은 방위산업에 대한 용자 제공 업무에 특화된 것으로 러시아의 두 거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뱅크와 VTB를 미국의 제재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sup>58)</sup> 이런 점을 감안하면, Ka-226T의 장기간의 주문 계약 지연은 지불 메커니즘의 문제나 미국의 제재 조치의 영향력보다는 러시아산의 수입 가격과 인도 현지 합작생산 가격의 격차 그리고 노후 헬기 교체 및 해군의 함재헬기 신규 도입 사업에 관한 인도 측의 새로운 구상 등의 문제와 더 많이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인도가 러시아에서 생산된 Ka-226T를 수입하는 가격과 인도 현지의 합작기업에서의 생산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일 경우 즉, 일부 매체의 보도처럼 후자의 가격이 두 배가 된다면,<sup>59)</sup>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추구하는 국산화의 경제적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서 인도로 상당 수준의 기술 이전을 감안하더라도 Ka-226T의 수입 가격과 현지 생산 비용의 지나친 격차는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인도의 HAL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경량 헬기(Light Utility Helicopter: LUH)의 성능이나 가격이 Ka-226T

57) 러시아의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기업들을 총괄하는 거대 국영 지주회사인 로스텍(Rostec)의 국제협력 및 지역정책 담당 이사 빅토르 클라도프(Victor N. Cladov)는, 물론 처음에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직 및 개인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한 규제 조치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달러화가 아닌 다른 통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기로 한 정무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양국간에 러시아산의 모든 군수 거래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ussia to Push for Final Orders in \$1 billion Kamov Light Copters at Modi-Putin Talks Next Month," *The Economic Times*, August 29, 2019.

58) "Russia to Push for Final Orders"(2019).

59) Arun Mathew, "Indian Made Ka-226T Helicopters to Cost Twice That of Imported Ones," *DefPost*, May 30, 2017. <https://defpost.com/indian-made-ka-226t-helicopters-to-cost-twice-that-of-imported-ones/> (검색일: 2020.1.12.).

와 비교하여 적정하다면, 인도로서는 수입보다는 국산 모델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60)</sup> 말하자면, 합의된 140기의 현지 생산량은 인도측이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발주는 독자 개발한 LUH를 선택할 여지가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인도 HAL사의 내부적인 이해 충돌은 당사가 Ka-226T의 합작생산과 LUH 독자 모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성능과 비용 기준에 더하여 러시아와의 군사/군사 기술 협력의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바대로 Ka-226T의 최종 발주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조건에서 러시아는 인도 측에 대한 압박과 해군 헬기 획득 사업에 러시아의 참여 의사를 강조하는 양자 병행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2019년 9월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모디 총리에게 자신이 Ka-226T 헬기를 타고 왔다고 직접 프로모션 하였는데,<sup>61)</sup> 이것은 장기간 지연되어 온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간접적인 압박을 의미한다. 2019년 11월 두바이 에어쇼에서 로소오보론엑스포르트의 CEO 알렉산더 미헤예프(A. Mikheyev)는 2020년 5월까지 Ka-226T 납품 및 합작생산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재차 피력하였다.<sup>62)</sup> 그는 또 이전부터 Ka-226T 생산을 위한 합작 회사도 해군용 헬기 입찰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인도 공군과 육군에 더하여 해군에까지 Ka-226T의 공급 의지를 분명히 해왔다.<sup>63)</sup>

이처럼 인도 해군의 해상 헬기 획득 사업에 러시아헬리콥터스의 참여 의사는 Ka-226T 헬기 도입 및 합작생산 과정에 새로운 주요 변수의 등장을 의미한다. 인도 해군이, 역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일환으로, 1200억 루피(한화 약 2조원)를 투입하려는 111대의 해군용 헬기 도입 사업은 국방 획득의 주요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새로운 함재 헬기는 인도 해군의 노후

60) Sachdev (2017).

61) “Ka-226T: Why Putin Personally Promoted” (2019).

62) “India, Russia To Sign Ka-226T Contract By May 2020,” *Defense World.net*, 18 November, 2019, [https://www.defenseworld.net/news/25858/India\\_Russia\\_to\\_Sign\\_Ka\\_226T\\_Contract\\_By\\_May\\_2020#.XjzT-TEzaUk](https://www.defenseworld.net/news/25858/India_Russia_to_Sign_Ka_226T_Contract_By_May_2020#.XjzT-TEzaUk) (검색일: 2020.01.11).

63) “Russia to Offer the Ka-226T to Indian Navy for Naval Utility Helicopter,”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August 23, 2018.

한 체탁(Chetak) 헬기단을 대체할 예정이다. 2019년 초에 인도 국방부는 국내 기업들에게 입찰 요청서를 발송함으로써 해군용 헬기 획득 사업이 본격 시작되었다.

러시아는 현재 인-러 합작생산을 준비 중인 Ka-226T 헬기를 해군용으로 제안하고 싶어 한다. 인도가 도입 예정인 Ka-226T 헬기는 공군과 육군용으로 해군용 버전은 아직 없지만, 러시아 측은 러시아안헬리콥터스가 현재 준비 중인 함재기 버전 Ka-226T의 장점이 경쟁사의 모델들을 앞서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Ka-226T 함재기의 접이식 회전날개는 전함 갑판의 공간 이용도를 더욱 높여준다. 동축 회전익을 갖추어 후미익이 없는 Ka-226T의 구조적 특성상 측면풍에도 안정성과 기동능력을 가지며, 정밀한 공중 정지 능력 및 콤팩트 사이즈 역시 함재기로서 뛰어난 점이다.<sup>64)</sup> 인도 해군은 수 년 동안 Ka-25나 Ka-27 등 대잠수함 헬기 및 Ka-31공중조기경보헬기를 운용해 오고 있다는 점은 이미 그 디자인 및 전자제어시스템을 비롯한 작동 방식에 익숙하여 운항의 용이성과 상호 운용성 증진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러시아안헬리콥터스가 이 해군용 헬기 획득 사업의 입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경쟁상대들 뿐만 아니라,<sup>65)</sup>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만만치 않다. 현재 인도 정부의 정책은 해군용 헬기 사업자 입찰 자격을 국영이 아닌 사기업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러시아안헬리콥터스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인도의 사기업 중의 하나를 파트너로 선정해야 자격을 갖추게 된다. 현재 Ka-226T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할 인-러 합작벤처는, 그 소유자인 HAL이 국영기업이라서, 이 사업의 국내 전략적 파트너가 될 자격은 없다. 그러나 기존에 투자해 온 HAL의 생산 시설과 인프라를 감안할

64) Amrita Nair-Ghaswalla, "New Ka-226T Copters Ideal for Indian Navy," *The Hindu Business Line*, April 27, 2018.

65) 만약 러시아안헬리콥터스가 해군용 버전을 준비하여 입찰 경쟁에 참여한다면, 러시아의 경쟁상대는 프랑스의 에어버스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2015년 7월 시코르스키[Sikorsky] 항공 부문 인수함), 벨(Bell) 헬리콥터 등이다. 이들과의 합작생산에서 제조 시설의 설비를 맡을 파트너가 되기 위해 경쟁에 참여할 인도의 국내 기업은 타타, 마힌드라(Mahindra), 칼리아니(Kalyani) 그룹 등이다. "Russia to Offer the Ka-226T to Indian Navy" (2018).



때, 해군용 헬기 제작 과정에서 사실상 큰 몫의 작업량을 담당하는 등 본 계약의 수행을 위해 주요 공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sup>66)</sup> 이처럼 사실상 합작벤처 기업의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헬리콥터스가 또 다른 인도의 사기업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심각한 내부 이해 충돌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측이 인도 국방부의 함재 헬기 획득 사업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를, 인도 국방부는 공군과 육군에 도입될 헬기 합작생산 문제를 곧 뒤이어 진행될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의 일환인 해군 헬기 획득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두 주문의 결합을 통해 합동 군사작전에서 상호운용성의 효율화 문제뿐만 아니라 도입 헬기의 규모 증대를 가격 인하의 주요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서, 인도 측이 최종 발주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인도 공군과 육군용의 200기 Ka-226T 획득 문제와 새로운 111기 해군용 헬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는 여전히 열린 선택지로 남아 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 Ka-226T 도입의 시기, 기술 이전 정도, 운용 및 AS를 위한 인력 훈련 프로그램, 최종 가격 결정이 구체화될 것이다.

#### IV. 인도-러시아 방위산업 협력의 전략적 의미

Ka-226T 헬기의 인도 현재 생산을 위한 합작벤처는 메이크 인 인디아 프로그램의 인도-러시아 양자간 최초 실험 프로젝트이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른 이 같은 방산협력은 어떤 다른 재화의 현지 합작 생산과 다른 차이점은 안보 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Ka-226T 합작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에 대

66) “Govt Yet to Decide on HAL Bid, Foreign Cos Tie up with Private Firms,” *The Economic Times*, July 21, 2019.

한 기대 외에 글로벌/지역 수준의 강대국 세력관계에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근년에 인-러 방산협력 부문은 전통적인 관계의 관성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지만, 그보다는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및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힘의 역학관계와 그것에 대한 양국의 지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N. Modi) 인도 총리의 취임(2014년 5월) 후 그의 대외정책 기조는 전임 총리들의 ‘룩 이스트(Look East)’로부터 ‘액트 이스트(Act East)’로의 전환과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sup>67)</sup> 인도의 강대국 외교에서 액트 이스트 정책의 초점은 미국과의 다면적 협력 강화와 전략적 파트너십의 추구로 나타났으며, 다수 고위급 회담과 양자협정을 통해 양국 관계는 경제, 군사 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도 인도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해 왔다. 2019년의 총선에서 모디 총리는 압승을 거두어<sup>68)</sup> 집권1기의 정책노선을 더욱 심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모디 총리의 대미관계 심화 노력은 러시아가 더 이상 과거처럼 인도를 위해 대중 균형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기인하였다. 인도의 오랜 우방이며 냉전기에는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여 뉴델리에게 안보 제공자 역할을 해 왔던 러시아는 크림병합(2014년 3월)과 돈바스 반군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서방의 경제 제재에 처한 가운데 외교적 경제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중국과의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해 왔다. 현재와 같은 러-미 갈등 구도와 인도-중국 경쟁 구도에서, 러-중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는 뉴델리의 대러 신뢰도를 저하하는 반면에, 인도-미국 협력관계의 강화는 러시아의 국익과 영향력에 대한 침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67) “‘Look East’ Policy Now Turned into ‘Act East’ Policy: Modi,” *The Hindu*, November 13, 2014.

68) 2019년 4월 11일-5월 19일까지 실시된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인도인민당(BJP)이 단독으로 303석, BJP가 이끄는 선거연합 국민민주동맹(NDA)에 속한 여타 정당들이 50석을 확보하여 NDA는 총계 353석을 확보하였다. 이 수치는 총선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543석의 압도적 과반을 의미한다. Samir Saran, “Narendra Modi and His Soaring Popularity,” Valdai Discussion Club, Expert Opinions, May 30, 2019.

게다가, 러-중 관계 심화에 더하여, 러시아는 파키스탄과 군사협력협정 체결(2014년 11월) 및 테러리즘과 마약 밀거래 퇴치를 위한 합동 군사훈련, ‘우호 2016(Friendship 2016)’을 최초로 수행(2016년 9월-10월)하는 등 인도-미국 관계의 접근에 비례하여 파키스탄과의 협력관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인도의 전통적 경쟁 국가 중국과 적대 국가 파키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이런 행보에 뉴델리는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러시아의 대중 전략적 협력관계 심화 그리고 대파키스탄 협력 관계 증진의 의도가 인도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히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의 진척을 통한) 중-파 간의 ‘전천후 우호(all weather friendship)’ 관계 강화는 인도의 안보와 국익에 도전요인으로 간주된다.<sup>69)</sup>

그러나 모스크바와 뉴델리는, 러-중관계, 러-파관계, 중-파관계의 강화 그리고 이와 대응 구도로 발전해 온 인-미관계 강화라는 양국 관계의 구조적 균열 요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우호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피하면서 최소한 호혜적 실무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인도 고아(Goa)에서의 양국 정상회담(2016년 10월)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17차를 맞은 인-러 연례 정상회담에서 무려 16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sup>70)</sup> 이 회담에서 Ka-226T 헬기의 합작 생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첨단 무기체계 S-400 트리움프(Triumf) 대공 미사일방어시스템의 구매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론의 관심은 인도가 오랫동안 러시아로부터 획득하고 싶어 했던 S-400으로 쏠렸다. 중국이 도입한 S-400 1차 포대분의 배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sup>71)</sup> 인도의 전력 증강 노력이 언제나 중국의 수준을 비교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sup>72)</sup> 미사일방어 영역에서

69) Chandra Rekha, “India-Russia Defence Cooperation: Re-discovering a Long Lost Friend,” *National Defence and Aerospace Power*, Issue Brief 117/16, September 30, 2016, p. 5.

70) Nilova R. Chaudhury, “Russia-India Relations in 2016: A Review,” *Russia and India Report*, December 28, 2016; “India, Russia Make Progress on Major Defence Deals—Kamov Choppers, S-400 Triumf Air Defence and BrahMos,”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3, 2018.

71) 중국이 2014년 러시아로부터 도입 계약(약 \$30억)을 체결한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의 1차 포대분이 2017년 10월 배치되었으며, 2차 포대분이 2020년 1월 중국으로 인도되었다.

인도의 중국 따라잡기는 제19차 뉴델리 연례 정상회담(2018년 10월)에서 푸틴 대통령과 모디 총리가 인도의 S-400 구매 계약(5개 포대분 약 \$54.3억)에 서명함으로써 등가에 도달하였다.<sup>73)</sup>

이처럼 인도가 국가방위의 눈높이를 언제나 중국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힘의 균형 관점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인도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접경한 중국 견제를 위해 배후에 위치한 러시아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대륙의 최강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인도가 필요하다.<sup>74)</sup> 접경국간 지정학적 균형 정책의 맥락에서,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기 소련-인도 관계와 같은 단순 구도 속의 (때로는 후견-고객 관계에 더 가까웠던) 선명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복원할 수는 없을 지라도, 21세기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세력관계의 복잡 구도 속의 파트너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간 방산협력 긴밀화의 지전략적 합리성도 이 구도 속의 상호위상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인도와 러시아가 냉전기와 비교하여 상호간 전략적 비중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국이 방산협력을 강화하게 된 데는, 이와 같은 21세기의 변화된 글로벌/지역적 힘의 배분 및 그것이 반영된 세력관계의 변화 속에서도 군사·안보 전략적 이익의 접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도는 주로,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인 근현대화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그리고 러시아를 지렛대로 한 대중 균형 전략 추구를 위해,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하면서도) 미국의 인도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여 자국의 전통적인 전략적 독자성 유지를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72) "Russian S-400 Triumph Gives India an Edge against Pakistan, China,"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3, 2018.

73)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S-400 미사일시스템의 인도 시기는 2020년 3월-2023년 4월까지이다.

74)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2017), 90-91쪽; 102-106쪽.

한다.<sup>75)</sup>

한편으로 인도는 중-러관계 심화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대외 관계에서 미국에 대한 독립성 약화를 예방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통적 관계를 일정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SCO 가입,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의 협력, 푸틴 대통령의 ‘확대 유라시아(the greater Eurasia)’ 구상에 대한 전향적인 지지 등 유라시아지역과 연관된 프로젝트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76)</sup> 인도는 일대일로로 핵심 사업인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에 대한 대응 프로젝트로 구상한 차바하르항 개발 사업에서 보듯이 이란,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와의 서북 방향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sup>77)</sup> 물론 이 사업은 중-파경제회랑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히말라야와 중국을 우회하여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육상 연계를 갖는 지정·지정학적 효과가 있다.

정리하면, 모스크바와 뉴델리는, 러-중관계 및 인-미관계 강화라는 양국 관계 균열 요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상대방을 자신의 경쟁자(혹은 적대자)에 대한 견제자로서 유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21세기 복합지전략 구도 속의 이러한 상호입지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급속한 냉각을 피하면서 호혜적 실무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 마디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하의 Ka-226T 합작생산은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유대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어주며 군사/군사기술 부문의 협력이 경제·기술 전반으로 확장되도록 자극하는 주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5) Bong-koo Kang, “Facelift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oes Softer Balancing Continu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4 (2016), pp. 582-85.

76) Timofei Bordachev, “Cooperation Along the Eurasian Rim: A Long Way Into the Future,” *Expert Opinions*, Valdai Discussion Club, January 27, 2020.

77) Subhash Singh, “India’s Chabahar Policy: Implication for China-Pakistan Coop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Vol. 4, No. 5&6 (May & June 2017).

## V. 결 론

지금까지, 냉전 후 시기에 인도와 러시아간에 진행·논의되어 온 인도 현지 합작생산 방식의 방산협력에 대해 브라모스 미사일과 Ka-226T 헬기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 과정, 성과 및 제한점 등을 검토하고, 냉전기에 비해 상호 준동맹적 파트너십이 약화된 21세기의 국제 환경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어 온 양국간 방산협력이 함축한 지전략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브라모스 미사일의 합작생산은 주로 인도의 도입 필요성 인식으로부터 추동되었다. 현지 합작생산은 공중발사형 브라모스-A 모델, 브라모스 블록-3(Block-III) 등 인도군의 무기체계 운용에 따른 요구 조건에 맞추어 새로운 현지화 모델의 연구/개발로 진화되었다. 이것은 인도 공군의 필요에 맞춘 변형 조립 생산 모델인 다목적 전투기 Su30-MKI 경우처럼, 인도 크루즈미사일의 군사기술적 역량 증대 뿐 아니라, 인도군의 요구조건에 맞춘 새로운 개발 모델이 러시아의 군전력 증강에도 기여하는 사례가 되었다. 인도와 러시아의 합작 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기술 제공국과 수원국 모두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브라모스 미사일의 해외 수출은, 합작생산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주로 양국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브라모스 합작생산의 경험은 인도 공군과 육군의 헬기 도입 사업에 러시아가 인도 현지 합작생산 파트너로서 선정되는 데 하나의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유추 가능하다.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취지에 따른 최초의 프로젝트인 경량 다용도 헬기 카모프 Ka-226T 합작 생산은 헬기의 제원과 성능에서 인도의 요구 사항에 대부분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합작기업 설립 및 등록, 헬기의 구성 형태, 현지 합작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합작기업의 협력사 선정, 가격 등 절차적·법적 준비가 완료되었지만, 인도 측은 최종 발주 계약 체결을 미루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인도의 러시아산 무기 거래와 방산협력을 제재하려는 워싱턴의 정책에 대한 뉴델리의 대응과 입장을 보면, 최종 계약 지

연은 ‘미국의 적대세력 대상 제재법(CAATSA)’이 직접적 요인은 아닌 것 같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압박의 제1 대상으로 삼아 왔던 S-400 트리움프 미사일의 구매 계약 체결(2018년 10월) 사례가 보여주듯이, 인-러 무기 거래를 차단하려는 미국의 제재정책에 대한 인도의 단호한 거부, 워싱턴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필요성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군수 거래와 방산협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뉴델리의 Ka-226T 최종 계약의 지체는 앞서(III-2) 언급했던 세 가지 요인들 중 일부 혹은 전부와 연관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던지 간에 최종 계약 지체 문제는 조만간 기술 이전 정도 및 가격, 함재 헬기 입찰 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 조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모스 크루즈미사일과 Ka-226T의 인도 현지 합작생산을 중심으로 인-러 방산협력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탈냉전의 변화된 국제 세력관계 속에서 양국간 방산협력의 활성화를 다시 추동한 요인으로 다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인도의 무기체계의 약 72%가 러시아식이라는 경로의 의존적 요인의 작용이다. 일례로 현재 인도는 러시아산 프리기트 함 2척의 수입과 2척의 합작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인도 해군의 함재 헬기 도입 사업에 러시아의 Ka-226T 해상 버전이 채택된다면, 그 상호운용성은 높아질 것이며 인도 무기체계의 경로 의존성은 더 강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군사기술 이전(인도의 입장)과 군사기술 협력의 시너지 효과(양국의 공통 입장)에 대한 기대이다. 러시아(소련)는 서방의 어떤 나라보다도 인도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에 더 호의적이었다. 소련은 인도의 전투기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허용, 더 나아가 고기술 무기체계의 이전을 누구보다도 더 용이하게 제공하였다. 역으로, 러시아도, 브라모스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 현지화로 개발된 모델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기술 수원국인 인도로부터, 브라모스 블록-3와 Su30-MKI 등의 역수입을 통한 전력 증강을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방산협력의 강화가 양국의 지전략적 입지를 변화시키는 영

향 변수가 되지 못하지만, 언제나 그 역은 성립한다는 것이다.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공유 접면이 넓을 경우, 정부 차원의 적극적 방산협력 지원은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강화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러-미 갈등구도와 인-중 경쟁구도에서, 러-중 전략적 파트너십의 심화는 뉴델리의 대미 접근을 유발하고, 인-미 협력관계의 강화는 러시아를 파키스탄에 좀 더 관여하도록 만든다. 즉, 양국은 냉전기의 소련-인도 관계와 같은 명료하고 심도깊은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여전히 서로 전략적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중국과 최고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시아대륙의 최강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인도가 필요하며, 인도는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있지만, 접경한 중국 견제를 위해 그 배후에 위치한 러시아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도와 러시아간 방산협력 긴밀화를 받쳐주는 지전략적 존재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 정치학회보』 제25집 1호 (2017).
- “BrahMos Cruise Missile.” *Military-today.com*
- “Dubai Airshow: India Marketing Supersonic Cruise Missile BrahMos.” *The times of India*. November 14, 2017.
- “HAL to Export Su-30MKI, MiG-29 Engine Parts.” *Defense World*. February 10, 2020.
- “India and Russia Finalise JV Documents for Kamov 226T Helicopters.” *The Economic Times*. February 14, 2017.
- “India Gets Two New BrahMos Regiment.” *Sputnik*. April 1, 2016.
- “India Proud to Be Armed with the Su-30MKI Fighter—Indian Minister.” *TASS*. March 26, 2015.
- “India to Arm Sukhoi Fighters with BrahMos Supersonic Cruise Missile; First Test This Week.” *Times Now News*. November 14, 2017.
- “India to Sign Rs 32,000-Crore Deal for 12 Minesweepers Under Make in India Initiative.” *Swarajya*. March 1, 2017.
- “India, Russia Agree to Export BrahMos to Third Countries.” *TASS*. May 29, 2016.
- “Indian Navy Spurns Homemade Warplane, Latest Blow to PM Modi’s ‘Make in India’ Plan.” *Reuters*. February 20, 2017.
- “Ka-226T: Why Putin Personally Promoted This Helicopter to Modi.” *The Week*. September 05, 2019.
- “‘Look East’ Policy Now Turned into ‘Act East’ Policy: Modi.” *The Hindu*. November 13, 2014.
- “Russia Keen to Tap India as Global Aeronautics Manufacturing Base.” *The Hindu*. August 19, 2016.
- “Russia to Start Deliveries of Ka-226T Helicopters to India in 2019.” *The*

*Economic Times*. February 20, 2017.

“Showdown of America First Versus Make in India Looms at Aero India 2017.” *Bloomberg*. February 20, 2017.

“BrahMos Close to 1<sup>st</sup> Export Success? Philippines Expresses Interest.” *The Week*. October 28, 2019.

“Govt Yet to Decide on HAL Bid, Foreign Cos Tie up with Private Firms.” *The Economic Times*. July 21, 2019.

“India Issues Formal Tender to Purchase 200 Kamov Ka-226T Multi-Role Helicopters.” *Sputnik International*. May 17, 2018.

“India, Russia Make Progress on Major Defence Deals--Kamov Choppers, S-400 Triumph Air Defence and BrahMos.”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3, 2018.

“India, Russia To Sign Ka-226T Contract By May 2020.” *Defense World.net*. 18 November, 2019, [https://www.defenseworld.net/news/25858/India\\_\\_Russia\\_to\\_Sign\\_Ka\\_226T\\_Contract\\_By\\_May\\_2020#.XjzT-TEzaUk](https://www.defenseworld.net/news/25858/India__Russia_to_Sign_Ka_226T_Contract_By_May_2020#.XjzT-TEzaUk) (검색일: 2020:01.11).

“Indian Delegation Witnessed Performance of Ka-226T Helicopter.” *IDR News Network*. April 19, 2018.

“Indo-Russian JV for 200 Kamov Choppers Registered in India: Russian Defence Major Rostec.”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4, 2018.

“Ka-226T: Description.” *Russian Helicopters*. 2017.

“Ka-226T: Russia’s Unique Modular Helicopter.” *Defencyclopedia*. October 24, 2015.

“Ka-226T: Why Putin Personally Promoted This Helicopter to Modi.” *The Week*. September 5, 2019.

“Modi-Putin Meeting on Saturday: S-400, Ka-226T on Top Agenda.” *The Week*. October 1, 2018.

“New Initiatives.” <http://www.makeinindia.com/policy/new-initiatives> (검색

일: 2020.1.12.).

- “Russia to Offer the Ka-226T to Indian Navy for Naval Utility Helicopter.”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August 23, 2018.
- “Russia to Push for Final Orders in \$1 billion Kamov Light Copters at Modi-Putin Talks Next Month.” *The Economic Times*. August 29, 2019.
- “Russian Helicopters Announces Registration of Russian-Indian Maker of Ka-226T Helicopters.” *Interfax*. June 19, 2017.
- “Russian Helicopters Identifies Potential Partners in Localization of Ka-226T Chopper.” *The Economic Times*. February 21, 2019.
- “Russian S-400 Triumph Gives India an Edge against Pakistan, China.” *The Economic Times*. Updated on July 13, 2018.
- Bambha, Ruchi. “‘Make in India’ Best Suited to Cater to Needs of Indian Army: Lt Gen Subrata Saha, Deputy Chief of Army Staff.” *The Economic Times*. April 15, 2016.
- Bedi, Rahul. “Indian MoD Issues Follow-on RFP for 200 Ka-226T Helicopter.” *Jane’s 360*. September 10, 2018.
- Blank, Stephen and Edward Levitzky. “Geostrategic Aims of the Russian Arms Trade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Defence Studies*. Vol. 15, No. 1 (2015).
- Bordachev, Timofei. “Cooperation Along the Eurasian Rim: A Long Way Into the Future.” Expert Opinions, Valdai Discussion Club. January 27, 2020.
- Chakraborty, Aniket. “Russia to Take Part in IAF Tender for 400 Fighters.”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16, 2017.
- Chaudhury, Nilova R. “Russia-India Relations in 2016: A Review.” *Russia and India Report*. December 28, 2016.
- Gady, Franz-Stefan. “India’s Air Force to Start Receiving Nuclear-Capable Cruise Missile in 2018.” *The Diplomat*. November 14, 2017.

- Ganguly, Rajat. "India's Military: Evolution, Modernization and Transformation." *India Quarterly*. Vol. 71, No. 3 (2015).
- Ito, Toru. "India's Pragmatic Diplomacy with Major Powers: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with the US, China, and Russia." in Shinichiro Tabata. (ed.). *Eurasia's Regional Powers Compared—China, India, Russia*. London: Routledge, 2015.
- Kang, Bong-koo. "Facelift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Does Softer Balancing Continu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8, No. 4 (2016).
- Kapoor, Nivedita. "India-Russia Relations: Beyond Energy and Defence." ORF(Observer Research Foundation) Issue Brief. Issue No. 327. December 2019.
- Khanna, Sundeep. "Time to Rethink Modi's 'Make in India' Push." *Livemint*. December 28, 2016.
- Kupriyanov, Alexey. "Impact of the U.S. Anti-Russian Sanctions on the Russia-India Cooperation in the Military-Technical Area." RIAC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September 10, 2018.
- Makienko, Konstantin. "Make in India Is an Ideal Platform for the Russian Defence Industry: Expert."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1, 2017.
- Nair-Ghaswalla, Amrita. "New Ka-226T Copters Ideal for Indian Navy." *The Hindu Business Line*. April 27, 2018.
- Ogden, Chris. *Indian Foreign Policy: Ambition and Transition*. Cambridge: Polity Press, 2014.
- Pant, Harsh V. *The US Pivot and Indian Foreign Policy: Asia's Evolving Balance of Power*. London: Palgrave Macmillan, 2016.
- Peri, Dinakar. "In a First, Air-launched BrahMos Missile Test-fired." *The Hindu*. November 22, 2017.
- Rajagopalan, Rajeswari P. "Why BrahMos Sale to Vietnam Is No Violation of Missile echnology Control Regime Commitments." *Outlook India*.

August 23, 2017.

- Rekha, Chandra. “India-Russia Defence Cooperation: Re-discovering a Long Lost Friend.” *National Defence and Aerospace Power*. Issue Brief 117/16. September 30, 2016.
- Roy, Shubhajit. “‘Make in India’ to Be at the Centrestage of India-Russia Strategic Relationship.” *The Indian Express*. December 25, 2015.
- Sachdev, A. K. “Will the Kamov Ka 226T Meet India’s Requirements.” *Indian Defence Review*. Vol. 32, No. 1 (Jan-Mar 2017).
- Saran, Samir. “Narendra Modi and His Soaring Popularity.” Valdai Discussion Club. Expert Opinions. May 30, 2019.
- Sawhney, Pravin. “Sky is the Limit for Cruise Missile.” *The Pioneer*. October 12, 2017.
- Shukla, Ajai. “Desperate Russia Opens Doors for Foreign Militaries.” *Rediff.com*. August 26, 2015.
- Siddiqui, Huma. “Made in India Missiles Big Hit! Countries across the Globe Show Interest in Buying BrahMos, Akash.” *The Financial Express*. Updated on March 14, 2019.
- Sikorsky, Dmitry. “India to Build BrahMos 3 for Russia.” *Russia & India Report*. April 7, 2016.
- Simha, Rakesh Krishnan. “How Russia’s S-400 Makes the F35 Obsolete.” *Russia & India Report*. March 11, 2015.
- Simha, Rakesh Krishnan. “Mission BrahMos: How India Got the World’s Most Powerful Cruise Missile.” *Russia & India Report*. May 29, 2016.
- Simha, Rakesh Krishnan. “Views from Virginia: Why Russia Is India’s Dominant Arms Supplier?” *Russia & India Report*. February 8, 2017.
- Singh, Subhash. “India’s Chabahar Policy: Implication for China-Pakistan Coop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ocial Science*. Vol.

4 (5&6) (May & June 2017).

Som, Vishnu. “Not Your Business, Says Army after China’s Warning over BrahMos Missile.” NDTV. August 23, 2016.

Udoshi, Rahul and Jayesh Dhingra. “IAF to Begin Receiving BrahMos-A Cruise Missiles Next January.” *Jane’s 360*. November 14, 2017.

Vain, William W. “Sino-Indian Military Modernization: The Potential for Destabilization.” *Asian Affairs*. Vol. 21, No. 3 (1994).

Werf, Mees van der. “A Longstanding Friendship under Threat—Part 1.” RIAC. August 9, 2018.

Werf, Mees van der. “A Longstanding Friendship under Threat—Part 2.” RIAC. August 10, 2018.

Zavrazhin, Konstantin. ““Russian Helicopters’ Could Localize Mi-17 Production in India.” *Russia & India Report*. November 19, 2016.

<Abstract>

## **‘Make in India’ Policy and Indo-Russian Cooperation in Defense Industry**

Bong-koo K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defense cooperation between India and Russia during the post-Cold War era, and to analyze the geostrategic implications of defens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revitalized in the 21st century. The case study focused on the BrahMos Cruise Missile and the Kamov Ka-226T helicopter, the first joint venture project under the ‘Make in India’ initiative. In the case of BrahMos, the synergies of the Indo-Russian joint production have positively influenced the R&D of weapon systems in both technology provider and recipient country. Overall, this successful joint production experience can be inferred as a favorable factor for Russia selected as a joint production partner for the acquisition of light multirole helicopters by the Indian Air Force and Army. The joint production of Ka-226T is being delayed in final ordering. This issue will soon be resolved through the readjustment of the parties on the extent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price, and the qualifications and conditions for bidding on the new helicopters for Indian navy. The following factors were identified as driving factors for reactivation of Indo-Russian defense cooperation in the changing milieu of international power configuration. First, it has been a path-dependent factor in the acquisition and operation of the weapons system in India.

---

\* HK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Second, it has been the expectation on military technology transfer (India's position) and the synergy effect of the military-technology cooperation (two countries' common position). Third, both countries have shared geostrategic interests in power relations at the global/regional levels. The case of BrahMos and Ka-226T have served as a major link between the two countries, ensuring that the ties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are not broken.

**Key word:** India-Russia, 'Make in India' Policy, Indo-Russian Defense Cooperation, BrahMos Cruise Missile, Kamov Ka-226T Helicopter

[논문투고일: 2020. 01. 20]

[심사의뢰일: 2020. 02. 14]

[게재확정일: 2020. 02. 24]